“대한민국 토목의 미래 경쟁력 다지겠다”

장우식 조선대 토목공학과 교수

대한토목학회 YLHS 초대 위원장 선임
청년 학술대회·Job Fair 등 사업 추진
“차세대 활동 지원·네트워킹 장 마련”

“차세대토목리더위원회는 ‘세상을 바꾸는 토목, 우리가 움직이는 내일’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토목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차세대토목리더위원회(YLHS) 위원장에 선임된 장우식(44·사진)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의 포부다.

1일 대한토목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 토목의 날’ 행사에서 차세대토목리더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장우식 교수를 선임했다.

대한토목학회를 이끌고 있는 한승헌 회장은 젊은 토목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학회의 혁신 동력으로 연결하고, 미래 인프라 정책과 기술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토목리더위원회를 구성했다.

60여명으로 구성된 차세대토목리더위원회는 ▲젊은 토목인의 주체적 참여 ▲본회-지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인재 성장 ▲토목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장 교수는 “미래 토목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활동과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구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젊은 토목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 활동과 기술 교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차세대 토목 인재의 성장과 참여를 지원하고, 토목공학의 역할과 가치를 공유하며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이를 위해 청년 학술대회와 Job Fair,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추진해 토목인들의 성장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장 교수는 끝으로 “토목공학의 역할과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토목 분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차세대 토목기술인들의 활동 지원과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우식 교수는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남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박선옥 기자

“12분 완충”…GIST,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엄광섭 차세대에너지연구소장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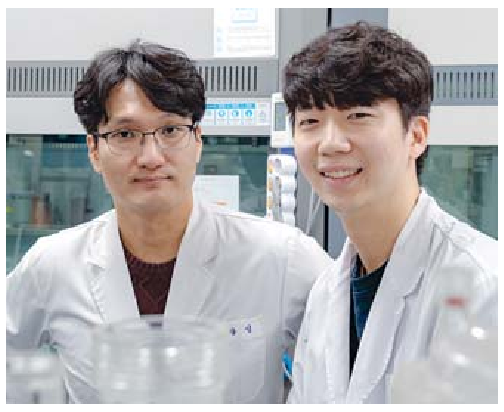
리튬금속전지 충전 속도·안정성 향상
전기차·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가능성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1일 “엄광섭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소장 연구팀이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를 표면에 입힌 3차원 구조체를 활용해 리튬금속전지의 충전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리튬이 쌓이는 위치와 방식이 배터리 성능을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해 리튬이 구조체 내부에서부터 균일하게 쌓이도록 유도하는 3차원 구조체(SP-PPy@pPVDF)를 설계했다.

특히 구조체의 표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설계해 리튬이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쌓이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구조는 전류 흐름을 조절해 리튬이 아래쪽부터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차곡차곡 쌓이도록 해 덴드라이트 형성과 부피 팽창을 동시에 억제한다. 그 결과 기존 리튬이온전지보다 에너지 저장 밀도를 2배 이상 높이고 부피 팽창 문제도 크게 개선했으며, 충전 속도를 크게 단축해 약 12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성능을 구현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엄광섭(왼쪽) 소장과 조진현 박사가 리튬금속전지의 충전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제공〉

이와 함께 기존 구조에서는 어려웠던 고속 충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항공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엄광섭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 대비 2배 이상의 에너지 저장 밀도를 갖는 리튬금속전지가 상용화될 경우 전기자동차와 항공 모빌리티의 주행거리를 2배 이상 늘리고 약 12분 수준의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광섭 소장이 지도하고 조진현 박사(제1저자)가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박선옥 기자

신한라이프, 광주시에 돌봄 등 후원금 1억 전달

신한라이프가 “1인가구 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광주시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과 김민지 신한라이프 지속성장본부 상무를 비롯해 안효철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나현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센터장, 주희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 1억원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형 맞춤지원사업(5천만원) ▲소상공인 인공지능(AI) 역량강화사업(5천만원) 등 지역사회 밀착형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지 신한라이프 상무는 “광주시민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일류 보험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은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신한라이프와 협력 기관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1인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들이 AI 시대 주역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식목일 맞아 ‘전남OK도민광장’ 단장

전남개발공사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1일 전남도청 앞 ‘전남OK도민광장’과 남악 중앙공원 일대에서 도민들과 푸른 녹색 가치를 나누는 ‘Green Step’ 나무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으쓱(ESG)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도민 쉼터인 공원 일대를 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심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먼저 남악 중앙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실시하며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어 전남OK도민광장으로 이동해 사계절 내내 생기 넘치는 경관을 선사할 철쭉(영산홍) 300주를 식재하며 공원 곳곳에 푸른 활력을 더했다.

장충모 사장은 “식목일을 맞아 주민들이 즐겨 찾는 OK도민광장을 직접 가꾸고 현장에서 도민들과 녹색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고용부 목포지청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달 31일 관내 조선업체 14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영암 대불산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요 사고 사례를 살피며 위험 요인 개선과 원·하청 간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목포지청은 ‘2026년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 계획’을 공유하고 ▲대불산단 집중 관리 ▲소규모 사업장 추락 사고 맞춤 점검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호재 목포지청장은 “안전을 경영의 핵심 요소로 삼고 현장 작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실천은 물론, 협력업체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동신대 산림조경학과-한국정원조경聯 ‘산학협력’ 협약

동신대학교는 “최근 산림조경학과가 (사)한국정원조경연합회와 전남도 정원관리사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정원문화 확산에 발맞춰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현장 실무 역량을 결합한 체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원 관리 기술 전수 ▲산림치유 ▲정원치유 ▲숲교육 등 생태복지 서비스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섭 회장은 “이번 협약이 정원관리사 양성 체계를 한층 더 전문화하고, 교육과 산업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실질적인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산림조경학과장은 “지역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선옥 기자

구례경찰, 주요업무계획·성과보고회

구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청내 섬지마루에서 정덕교 서장과 각 과·계장, 파출소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치안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으며, 날로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교통사고 예방 등 3대 주요 과제 근절에 모든 치안 역량을 집중해 지역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덕교 경찰서장은 “기존 치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대응력을 한층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구례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구례=김세중 기자

광주 용연학교, 복지센터 화분 전달

광주 용연학교는 1일 광산구 신창동 원광효도복지센터에 학생들이 기른 화분을 전달하는 ‘행복 나눔 곳간’ 행사를 개최했다.

용연학교는 지난 3월부터 전교생이 참여하는 노작 원예 교과 활동을 운영해 한 달여간 팬지와 버베나 모종 50본을 화분에 심고 가꿨다.

용연학교는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행복프리마켓 ▲수업 결과물(손부채·안마봉 등) 기부 ▲연탄 배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희성 교장은 “아이들이 화분을 가꾸고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상생하는 마음을 배웠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타인과 소통하며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광주 북부소방, 어르신 안전체험부스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는 1일 “효령노인복지타운 개관 16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지역 어르신과 방문객, 행사 관계자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부스 방문객들은 소화기 사용법과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하며 위기 대응 방법을 익혔다.

조혁환 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체험이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화재 및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결혼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군,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상무대로 글로리아웨딩홀 1층 라비아홀.

CMYK